

2006년 '경기북도 신설론' 급부상

제17대 국회 개원시점 정부 기획단 및 추진위원회 구성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경기북도 신설을 위한 정부내 기획단 및 추진위원회가 제17대 국회의원 개원 시점에 설치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북도 도지사가 선출될 것으로 보여 '경기북도 신설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우리당 문화상 국회의원 당선자(의정부 갑)가 "경기북도를 신설해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지사를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화규 경기도지사는 일관되게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된다.

경기북부지역은 서울인근에 있다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의 강한 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 때문에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됐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예산면에서 남부가 9조2천 949억원에 비해 경기북부지역은 3조5천44억원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대학은 경기남부에 28개, 경기북부지역에는 단 3개에 불과하다.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경기남부는 1.67%이며 경기북부지역은 2.03%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의 비율이 높다.

재정자립도 또한 경기남부지역은 70.5%인데 반해, 경기북부지역은 53.8%에 그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의 이같은 불이익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점경지역지원법도 정부가 예산 지원에 인색해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에 대해 순화규 경기도지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도를 할 경우 경기북부 발전을 추진할 힘이 지금보다 약화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 경기 남부

의 세원이 북부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분도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경기도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16대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은 지난 3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최근 경기북부지역의 열린우리당 당선자 10명과도 분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내에 기획단과 추진위원회 등이 구성될 전망이다.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북도는 의정부시, 남양주시, 고양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 인구는 260만명에 이르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제2청사 전경



본지 자문위원회 춘계수련대회

언론의 사명과 역할 강화 위해 노력할 것 다짐



본지 포천지역에서 해온 언론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 상호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이번 수련대회를 계기로 "자문위원회 역할이 포천신문의 병풍 역할이라고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렴하여 포천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호열 본지 발행인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문위원간 화합을 바탕으로 포천신문이 정확한 보도매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갑 기자 jpk61@hanmir.com

본지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는 지난 13일 춘계수련대회를 강화도에서 갖고 포천신문 발전을 위한 자문역할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는 양주승 자문위원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이 참가했으며 애기봉에서 안보경학, 석모도 관광 등을 통해 자문위원간의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자문위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포천신

제41회 전국자유수호 웅변예선대회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은 오는 6월3일 오후1시 유림회관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제41회 전국자유수호 웅변 예선대회를 개최한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 오후1시까지이며 신청접수 서류는 5분 분량 원고 1부이며 원고표지에 소속 학교·학년반·성명을 표시해야 한다. 접수 및 발표순위추첨은 포천시 신읍동 예원프라자 401동 한

국자유총연맹포천시지부에서 실시한다.

이번 웅변대회 주제는 다음과 같다. ▶6·25 극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 ▶국민안보의식 제고방안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북한의 인권실상 고발 및 개선 촉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국민 화합과 남북화해의 방안 ▶통일에 대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송지현기자 1070-sjh@hanmail.net



▲포천동체육회장 이취임식 포천동체육회장 이취임식이 지난 19일 박운종 포천시장과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원, 연세순 동장, 박형근 주민자치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문영운 전염회장이 이임하고 이성도 회장이 취임식을 가졌다.

포천 47번 국도변 '꿈의 관광코스' 개발

관광특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토론회서 청사진 제시



포천시가 47번 국도변을 중심으로 한 내촌면, 화현면, 일동면, 이등면 일대를 꿈의 관광 코스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1일 화현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된 '47번국도중심 관광특화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에서 밝혀졌다.

이날 토론회는 박운종 포천시장은, 홍성훈 포천시의회회장과 포천출신 예술가인 부산 동아대학교 김광우 교수, 대전대학교 안준수 교수를 비롯한 포천시 기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 대표들은 "베어스타운 리조트는 약 20여년간 포천시의 관광·레저의 중심지로 그 일익을 담당해 왔으나 현재 기존시설로는 이용객의 수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 대표는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뿐 아니라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로 변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제경기를 유치해 국제적인 관광 휴양지 50만명 늘여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구름도 쉬어가는 '느린마을' 조성사업▶영화마을 건립사업▶슬로우 푸드(전통음식) 체험관 건립사업▶우리꽃길 조성사업▶관광홍보안내관 설치사업▶일동·이동지역 온천 테마마을 조성사업▶꽃과 향이 어울리는 고장만들기 사업▶다목적 광장조성사업▶정계호수 관광지원화 사업▶이동갈비 특산물 사업 등이 포천시 담당자들에게 의해 안으로 제시됐다.

또 김희태 축구교실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송영현 백운계곡관광지부장이 "날이 갈수록 삭막해지는 백운계곡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지 소유자인 사할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포천시가 적극적으로 백운계곡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대진대 안준수 교수는 "온천 개발은 환경의 파괴를 불러오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백운계곡은 몇 안되는 오염안된 하천이 흐르고 있어 이곳을 자연학습장, 생태공원으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대진대 허훈 교수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1단계로 먹거리와 불거리, 2단계로 체험과 학습, 3단계 휴양·레저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각 단계별 아이디어를 종합화하고 계획화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운종 포천시장은 "지방자치의 근본은 오케스트라다. 팀을 구성해 예산과 조직, 운영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가 장미빛 꿈만 심어주는 계기가 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이전에 보다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예산확보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북부지역 젊은예술 활동 지원

5월12일~6월10일까지 접수마감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북부지역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7월이후 연내 추진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부서는 순수예술활동 분야와 새로운 예술활동 분야이며 지원방식은 문학분야는 개인창작 및

평론관련 책자 발간사업, 시각예술 분야는 미술·사진등 개인 창작 전시회 사업, 공연예술분야는 기획성이 있는 공연이다.

신청자격은 경기북부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하 성인 예술인이며 단체구성원이 경기북부지

역에 거주하는 35세 이하 성인으로 구성된 순수 예술단체이면 된다.

신청서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gggf.or.kr)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지원 사업은 소정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하게 되며 지원 결정된 사업은 개별 통지 및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송지현기자 1070-sjh@hanmail.net

VISIT GYEONGGI - KOREA 2005 경기방문의 해

www.visit2005.com www.gto.or.kr

경기도 경기관광공사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사랑해요 경기, 함께해요 2005년

Gyeonggi Province, the Heart of Korea

세계문화유산 화성
 世界文化遺産 華城
 The World Cultural Heritage Hwaseong Fortress

경기도에 오시면 한국이 한눈에 보입니다